

김용민브리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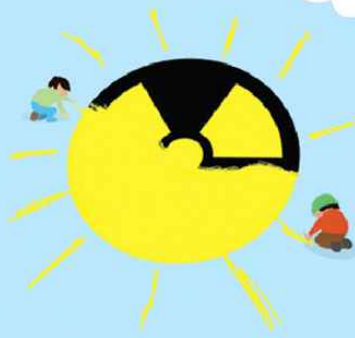
2016년 11월 15일 화요일

발행처 일곱시간행복그네

홈페이지 <http://www.podbbang.com/ch/9938>
 전자우편 kimyongminpd@gmail.com
 텔레그램 <https://telegram.me/kimyongmin>

60일의 건강보험증	02-766-1004
아름다운재단	www.beautifulfund.org
전통방식 숙성! 최고의 맛은	1599-6456, 010-9384-7970
알싸한홍어	alssahan.co.kr
대한민국 1등 품질 홍삼은	041-754-0884, 010-9754-6972
정성농장홍삼	jeongseongfarm.com
안티요! 다이어트 쇼핑몰은	031-783-6007
비타샵	vitashop.co.kr
예쁜 구멍이 쫘! 장 청소는	070-4115-0365, 010-2892-0365
미궁장사랑	jangsarang.com
아이에서 어른까지 안심 사용하는	1688-9113, 031-717-1613
수아비스화장품	www.suavislab.com
한 번 가면 계속 가게되는	031-902-9292
풍무양고기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770 삼희포시즌프라자 2층
세계 최고 브랜드에 10년 품질보증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 2325번길 28
매트리스엠	www.mattressm.com
진보가 만든 상품판매몰은	032-519-4800
네펜알	nepr.co.kr
정통 포루투갈 에그타르트!	facebook.com/tartfarm13
에그타르트 타르트팜 키넥스점	고양 일산서구 대화동 2602 레이킨스몰 154호
김치맛 말고는 자랑할 게 없는	1544-4586
이담채김치	edamche.com
3D 실물 피규어 수공예품 제작	010-5633-6036
메이드바이어스	madebyus.co.kr
김영란법 걱정 없는 최고의 선물!	070-8635-1288
전창걸의새싹땅콩차	전창걸.com
축하 위로 고백 응원에는	1566-0263
좋은사람과플라워	flowergood.co.kr
월1만원 화재보험카페 그리고	02-849-9730
월7천원온전자보험카페	cafe.daum.net/7000kim
내 아이 믿고 먹을 수 있는	010-2443-0818
와우전복	wowabalone.modoo.at
한우 사육에 가마솥에 팔팔 끓인	010-7252-1114, 031-989-9968
연지연곰탕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6-5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아세요?

세계 최대 규모 핵발전소 밀집지역 있는 나라가
 원자력안전기구가 동시 및 중대사고 대비 없는 나라가
 지진 위험지대지만 내진설계는 20-30배 낮게 적용한 나라가
 사고 나지 않았음에도 갑상선암, 핵폐기물 등의 문제 발생을 야기하는 나라가
 이 많은 핵발전소를 안 만들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요!
 원자력으로 불리지만 본질은 핵인
핵발전소를 반대합니다



박근혜 최태민 관계 밝혀야

김용민 / 김용민브리핑 대표 프로듀서



박근혜와 최태민은 어떤 관계였을까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하건, 그래서 슬하에 아이가 있건 크게 상관할 바 아닙니다.

그런데 친근한 관계의 두 사람이 공적 영역에서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법질서를 명멸했다? 이는 더 이상 사적 영역의 일일 수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명해야 할 팩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증언과 기록은 이렇습니다. 1977년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최태민의 성기를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민정수석실의 '최태민 보고서'에는 "(박근혜가) 최태민과 내연의 관계로 동거하고 있다"는 소문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 배포된 시사저널은 김종필 씨가 "박근혜가 최태민과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며 각별한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자 세계일보보는 정운화와 이튼바 '문고리 권력들'이 나눈 밀담 속에서 최태민은 '박근혜의 옛 애인'으로 표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정두언 새누리당 전 의원은 2007년 이명박과의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국면에서 '경쟁자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가 드러나면 온 국민이 구도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와 최태민의 관계가 제대로 규명돼야, 국가 공동체의 기강을 해친 죄의 실체는 온전히 확인될 것입니다. 그래야 무너진 국기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공적 영역에 국한돼야 할 진상을 사적 영역에서까지 따지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적 영역의 관계를 공적 영역에 가져와 농단을 부렸기 때문입니다. 듣기 아프고 민망하셨겠지만, 이런 실상을 따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가 여전히 청와대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 늘 | 의 | 김 | 용 | 민 | 브 | 리 | 핑

■ 11월 15일(화) 1부 | 십상시들 "최태민은 박근혜 애인"...규명 절실

[오프닝] 더 이상 최태민-박근혜 관계는 사생활 영역 아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검찰, 박근혜 사실상 피의자 신분 조사한다... '뇌물죄' 적용 검토

-청와대, 최순실 수사에 맞선 검찰 언론 대응 매뉴얼 작성

-최순실, 차 대리처방 사실로... '허위 공황장애 진단서' 발급 시도

-조원동, 이미경 퇴진은 "차 지시"...사실이면 직권남용죄 추가

-중앙일보 칼럼 송호근 권석천 "2선 후퇴도 늦어... 물러나야"

[뉴스듣기능력평가] 김종필 "말 안 듣는 박근혜" 관련 퀴즈

[국제뉴스의 맥] 황준호 외교통일전문기자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어붙이는 식물장관...야당, 적극 대응해야

- "한일 핵무장 허용? 그런 말 한 적 없어" 계속 말 뒤집는 트럼프

[경제의 속살] 이완배 민중의소리 기자

-박근혜와 최태원이 만난 올해 2월 무슨 일이 있었나?

-['트럼프 쇼크' 정면 분석] 미국 민중은 왜 힐러리 버렸나?

[공화국 논평] 박근혜 동지 갖고 노는 추미애에 대한 중대조치

입박한 박근혜 수사

중앙일보 박근혜, 사실상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대통령 박근혜를 사실상 피의자로 조사할 계획을 세웠다. 사정 당국 관계자에 의하면 검찰이 박근혜에게 '진술조서'를 받고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것이라고 한다. 진술거부권의 고지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수사기관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다. 검찰은 조사 과정이나 이후에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고지한다. 그 래야 나중에 법정에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검찰,朴·崔에 '뇌물죄' 적용 검토

검찰이 대통령 박근혜와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일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은 물론 별도로 최순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에 대가 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뇌물죄가 적용되면 공무원인 박근혜가 관여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다.

한국일보 부인도 시인도 못하는 박근혜 딜레마

그 동안 발표한 대국민담화문 등을 비취볼 때 박근혜는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다.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처럼 순수한 의도를 내건 오리발 전략은 하야·탄핵 여론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 반대로 최순실의 비리에 박근혜가 개입했음을 시인한다면 국회의 탄핵 소추 요건을 마련해 주게 된다. 또한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jtbc 청와대, '국정개입 사건' 증거인멸 지시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와 언론 등을 대비하기 위해 만든 문건이 확인됐다. 이 문건은 구속된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문건은 이 문건에 증거인멸 등과 관련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문서의 형식과 표현 등으로 미뤄 대통령 박근혜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SBS "최순실, 허위 공황장애 진단서 요청"

최순실은 그동안 공황장애로 인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순실이 입국하기 이틀 전, 최순실의 측근으로 알려진 대통령 자문 의사 김 모 원장이 차음병원에 허위진단서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차음병원 원장은 즉시 이 부탁을 거부했다. 그런데 어쨌든 진단서를 떼었던 말이지. 김 모 원장이 누구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부탁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국민일보 영양 주사 처방전에 'VIP' 적시

최순실의 단골인 차음병원 진료기록부에서 'VIP'라는 용어가 기록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청' '안가' '대표' 외에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영양 주사제 대리 처방을 의심케 하는 보다 확실한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기업의 지옥, 박근혜 정부

東亞日報 朴, 올해 2월에도 대기업 총수들 독대

박근혜가 지난해 7월에 이어 올해 2월 중순에도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 시기는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리던 때다. 지난해 7월 첫 번째 독대의 경우는 박근혜가 미르·K스포츠 재단의 출연과 관련한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두 번째 독대는 문화·스포츠 사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tv조선 조동원 "이미경 퇴진은 박근혜 지시"

검찰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2013년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에게 물러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조원동 전 경제수석은 최근 측근들에게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종용은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데, 대통령 박근혜가 사퇴를 지시한 증거가 드러나면 박근혜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소름끼치는 자기암시

국민일보 朴 "지도자가 무능하면 나라 망해"

대통령 박근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박근혜는 청년 시절 남다른 정의관을 가지고 있었다. 2012년에 출판된 '박근혜의 일기'를 살펴보면 지도자가 부도덕하고 무능하면 나라가 망하고, 바른생활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980년에 기록된 박근혜의 일기에서는 "간신의 말만 듣는 임금은 머지않아 자신과 나라를 망치고 만다"고 적혀있다. 박근혜는 유체이탈 문학의 최고봉이다.

수렴청정의 전설, 최태민 부녀

東亞日報 우병우·최순실의 연결고리 밝혀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장모가 최순실과 함께 골프를 친 정황이 확인됐다. 그동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에 입성했다” “최순실의 비위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묵인했다”는 의혹들이 난무했지만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국민일보 최태민, 육영재단 운영 좌지우지

대통령 박근혜는 그동안 최태민이나 최순실이 육영재단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던 1980년대 육영재단의 직원들의 증언은 이와 내용이 다르다. 당시 육영재단에서 근무했던 복수의 관계자들은 최태민을 고문이라고 불렀고, 서울 강남의 최태민 건물까지 찾아가 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최태민은 기업체에서 협찬금과 후원금을 받아내라고 재단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민의 전횡은 갈수록 심해져 나중에는 이사장 즉 박근혜 서명란에 최태민이 서명을 했다고.

새누리당, 분당 초입기

한겨레 당 대표 원내대표 따로 회의 주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은 이정현 대표의 사퇴와 당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에 정진석 원내대표는 비주류 측과 뜻을 같이 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가 따로 회의를 주재하며 새누리당에서 ‘한 지붕, 두 살림’ 풍경이 연출된 것이다. 분당 전야다.

촛불 그 이후는

중앙일보 “박근혜, 질서 있게 퇴진해야”

보수 논객인 서울대 송호근 사회학 교수는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촛불 민심의 향후 행로를 제안했다. 칼럼 일부 소개한다. “대통령을 꼭 탄핵할 필요는 없다. 탄핵 카드를 조심스레 거론하는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한다. ‘헌법과 절차’를 강조하는 주장은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기실은 합법성을 가장한 선동에 불과하다. ‘질서 있게 퇴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내놓은 제안이 돋보인다. 민란과 탄핵이 불러올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고, 정당에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하려면 대통령 박근혜가 퇴진 의사와 함께 퇴진 일정을 분명히 밝혀주는 것이 최선이다.” 보수의 대세도 박근혜 퇴진인 듯 보인다.

한겨레 “박근혜가 그만뒀도 헌정 중단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국에서 박근혜의 하야나 2선 후퇴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있다. 헌정이 중단되면 국정이 혼란에 빠진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 한겨레 정치팀 성한용 선임기자의 의견을 살펴보자. 칼럼 일부 소개한다. “대통령 박근혜가 자리를 이용해 돈을 뜯고 이권을 챙겼다. 당장 자리에서 내쫓고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그게 법치국가의 상식이다. 그런데 극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이 임기 도중 그만두면 헌정 중단이란단. 거짓말이다. 지금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다고 정부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해산되는 것도 아니다. 헌정 중단일 수 없다.”

오늘의 칼럼

중앙일보 “권력은 행동으로 마무리 된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권석천 중앙일보 논설위원의 칼럼 “권력은 행동으로 마무리 된다”이다.

“이제 자연인 박근혜 씨가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음은 분명해졌다. 그 이유는 헌법과 법률을 어겨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는 데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선 ‘박 대통령과 최 씨 일당은 사실상의 범단(범죄단체)’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 박 대통령은 마지막 정당성까지 잃게 된다. 그는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강조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이 말해주듯 작은 빈틈이라도 방치해선 안 된다’던 그 자신이 ‘깨진 유리창’이 되고 말았다.

이 상태에서 ‘대통령은 내치에서 손을 떼고 외치만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지금 시급한 일은 2선 후퇴든, 퇴진이든 박 대통령이 권좌에서 내려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찾아 거리로 나선 중고생들에게 응답하는 길이다. 만약 그가 제 발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면 예상이 현실화한다면 탄핵 외길밖에 없다.

그날 광장의 목소리들은 진지하고 절박했다. 교복 입은 학생들은 ‘세월호를 기억해 주세요’를, 가슴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특별법 제정’을,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철폐’ ‘성과연봉제 폐지’를 외치고 있었다. ‘박근혜 하야’ 촛불 밑에는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 에너지들이 허탈감으로 바뀐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건 반동(反動) 즉 ‘엘바 섬의 나폴레옹’ ‘한국의 트럼프’일 것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권력은 논쟁에서 시작돼 행동으로 마무리된다. 촛불을 드는 것도 행동이고, 시민들이 동의하는 정치 일정을 만들어내는 것도 행동이고, 물러나는 것도 행동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행동이다.”